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온실가스 감축

◆ 덴마크,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해저 저장(CCS) 목적 탐사 및 저장 허가 발급(주덴마크 대사관)

- 덴마크 에너지청(DEA)은 1.15(목) 북해에 위치한 포집된 탄소의 해저 저장 후보지인 Inez 부지*의 탄소저장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탐사 허가(exploration permit)를 부여하고, 탐사 결과에 따라 향후 탄소저장 허가를 부여하는 계약을 프랑스 에너지기업 TotalEnergies, 글로벌 투자운용사 Mitsui, 덴 국영기업 Nordsøfonden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수여하였다고 발표함.

* Inez 부지는 덴마크 서부 북유틀란드(North Jutland) 지역 Thyborøn 해안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함. 동 허가는 탄소저장 후보 부지로 선정된 Inez, Lisa, Jammerbugt 총 3개 지정구역에 대한 탐사 허가 및 탄소저장에 관한 입찰 결과에 따라 수여된 것임.

- (현황) 금번 수여된 계약을 포함하여, 덴마크 전역에는 육상 및 해저 탄소저장 부지 각각 4곳, 총 8곳에 대한 탐사 허가 및 탄소저장 허가 발급 완료

- 덴마크 에너지청은 덴마크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저장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하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, 다양한 지역에서 탄소 저장시설이 개발되어 탄소 포집·저장(CCS)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면 CCS를 활용한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.

※ 덴마크-그린란드 국립지질조사국(GEUS)이 2023.11월 발표한 분석보고서는 덴마크는 유럽에서 CCS에 가장 적합한 장소 중 하나로, 자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양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.

신재생에너지

◆ 앙골라,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대 규모 오프그리드 태양광 발전소 개소(주앙골라 대사관)

- 앙골라 에너지수자원부는 2025.12.3.(수) Moxico Leste州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오프그리드(off-grid)* 태양광 발전 시설인 25.4MWp(megawatt-peak)**급 Cazombo 태양광 발전소를 개소함.

* 중앙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·사용하는 시스템

** 모든 조건들이 최적화되었을 때, 모듈이 최대로 낼 수 있는 발전능력

- 동 설비는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 저장 시스템(75.26MWh)이 결합된 태양광-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

- 총 40,320개의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패널이 공급되었으며, 배터리 저장시스템은 삼성 SDI社에서 공급. 끝.